

성인 범죄집단의 청소년 비행집단 구성원에 대한 포섭억제 방안에 관한 연구

오 형 석*

A Study on the Control of Inflow from Juvenile Delinquency Groups to Organized Crime Groups

Oh, Hyung Seok *

요 약

성인 조직범죄집단은 조직유지와 활발한 조직활동을 위해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을 포섭하려한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조직범죄집단에 유입된다. 이는 당해 비행청소년은 물론 그 주변의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 집단 간의 연계를 통한 유입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행위에 대한 예방목적의 프로그램 활용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제도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서로를 접하는 공간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통제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예방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Keyword :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 조직범죄(Organized Crime), 연계(Liaison), 통제 수단(Measure to Control),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 제1저자 : 오형석

* 원광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수료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몇 년 전부터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그 뉴스의 소재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그 폭력성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사실은 학교폭력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여파가 학생 개인의 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예전부터 학교 내의 청소년 비행집단을 대표하는 명칭인 일진회처럼 갈수록 폭력조직화되며 이 조직화된 청소년 비행집단이 성인 조직범죄집단과 연계되어 조직폭력단 구성원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1][2][3]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듯 최근 조직폭력범죄로 검거된 연령층을 살펴보면 20대가 주축이 되며 10대도 일부 찾아볼 수 있는 저연령화 추세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4]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영화 등 각종 매체의 미화로 인하여 조직폭력세계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환상 때문에 쉽게 조직폭력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다. 이는 그 개인의 일생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므로 비록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높은 강제성을 가지더라도 그러한 선택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비행청소년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공교육 현장과 가정에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할 때 그들이 인하여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그러한 악영향이 확산되는 정도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5]

이와 같은 이유로 성인 폭력조직과 그들에게 있어 쉽게 수단화 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집단과의 연계나 접점을 차단하여 청소년들이 성인 폭력조직에 유입되는 현상을 통제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것이며 여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청소년 비행집단과 성인 조직범죄집단 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제를 가하기 쉬운 쪽은 물론 청소년 비행집단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비행집단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성인 조직범죄집단과의 접촉을 억제하고 그들에게 유입되는 통로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기존의 제도적 수단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초한 비판적 고찰의 결과에 관한 제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유입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관련문헌과 언론보도의 검토, 자료의 분석 등 문헌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양 집단의 연계현상을 살펴보려면 우선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이 왜 조직범죄집단에 가입하려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유입현상의 통제에 있어서 청소년 비행집단과 성인 조직범죄집단 모두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 비행집단에 대한 통제가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과가 크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더 용이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통제의 대상이 되는 현상과 청소년 비행행위 방지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본격적·포괄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이전부터 행해져왔던 양 집단의 연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는 청소년 비행행위 예방목적의 학문적 논의와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실증적·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양 집단의 의미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청소년 비행집단과 성인 조직범죄집단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릴 수 있고 범위 또한 정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하므로 그 의미를 한정지를 필요성이 있다.

2.1.1 청소년 비행집단

청소년 비행집단의 정의에 대하여 미국의 범죄사회학에서 시작된 청소년 갱의 발생원인,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다양한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완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비행집단을 정의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첫 번째 요소로 집단 구성원의 통합 정도, 두 번째 요소로는 나름대로의 조직 구조 형성을 들고 마지막 요소로 집단 구성원들의 활동 성격이 비행행위에 참여하고 반사회적일 것을 제시하고 있다.[6]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집단은 '청소년들이 일정한 조직구조를 형성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일체감을 가지는 구성원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르기로 한다.

2.1.2 성인 조직범죄집단

성인 조직범죄집단은 흔히 말하는 조폭 즉, 조직폭력단 또는 폭력조직을 가리키는 말로 청소년 비행집단에 대비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 규모나 죄질의 수준에 상관없이 이하 유사하게 표기하기로 한다.

2.2 청소년 비행집단의 성인 조직범죄집단으로의 유입원인

유입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조직범죄의 원인을 다룬 이론적 논의와 청소년 개인이나 성인 폭력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논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2.2.1 유입현상에 대한 범죄학적 원인론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청소년이 어떻게 조직범죄에 가담하게 되는지의 문제와 관련된 조직범죄이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학습이론과 사회해체이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의 세부내용들을 들 수 있으며 일반범죄이론 중 낙인이론도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2.2.1.1 학습이론

학습이론의 주된 요지는 일반인이 배우게 된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여 삶을 꾸려나가기듯이 청소년들도 비행행위를 통하여 얻게 된 경험을 그들의 삶에 반영한다는 것이다.[7]

2.2.1.2 사회해체이론

사회해체이론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Merton의 아노미 이론, Bell의 Queer Ladder of Mobility Theory, Cloward·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 Taylor·Walton·Young의 제한적 기회이론과 Cohen의 비행 하위문화이론이 이 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회해체이론들은 그것이 대두된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보이나 그 요지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들은 여간상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합법적 수단을 얻기 어렵고 또 하위문화를 배경으로 살아가면서 조직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유입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라 할 것이다.[8][9]

2.2.1.3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행위의 실행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행동의 결과나 이익을 비교해 본 이후 무엇이 자신에게 더 득이 되는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10]

이러한 이론적 설명은 빈곤층의 청소년들에게서 비행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현상은 물론 더 나아가 조직폭력에 가담한 청소년 중에서 자발적이었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11][12]

2.2.1.4 낙인이론

낙인이론이란,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이 범죄자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에 따라 그들 또한 그러한 인식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13]

이는 청소년들이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인 낙인이 짙히게 되고 이러한 낙인 때문에 취업 등에 있어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보다 심한 범죄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2.2.2 청소년이 지니는 심리적 원인

중상층 이상의 청소년들 대부분은 학업이나 직업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통하여 자신의 남성성을 성취하려고 하는 반면에, 비교육적인 하위문화의 환경 속에서 학업 등에 대한 성취가 어려운 하위계층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문화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적이고 과장된 형태의 남성성 문화에 집착하게 되고 이러한 남성성을 획득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비행이나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14]

2.2.3 성인 조직범죄집단의 현실적 요구

성인 조직범죄집단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조직폭력단은 실제로 그들의 활동적인 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20대 초반 내지 10대 후반의 젊은 행동대원들을 필요로 한다. 이는 폭력조직의 활동에 따른 위험성으로 사망이나 부상 또는 조직에 대한 배신이나 수사기관의 수배로 인한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러한 젊은 조직원들은 소년 또는 학생의 연령대이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가 많아 사법당국으로부터 훈방 내지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어린 나이기 때문에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직의 활동에 활용한다. 그리고 조직의 기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탈자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15]

III. 유입현상에 대한 통제와 청소년 비행 예방프로그램과의 관련성

3.1 유입현상에 대한 일반적 대책

청소년 비행집단과 성인 폭력조직 간에는 그 규모나 정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양 집단 간의 유입에 대한 적극성 즉, 유입의 방향성은 청소년 비행집단 쪽보다는 성인 폭력조직을 향하는 쪽이 더 클 것이다.

또한 성인 폭력조직의 하부격인 청소년 폭력조직의 구성원

이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보다 엄격하고 충실한 제재와 격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 대부분이 안정적이지 못한 배경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입현상의 통제에 있어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3.2 청소년 비행행위 방지제도와외의 관련성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이 성인 폭력집단에 유입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 비행집단에서 비행행위를 접하다 여러 원인에 의하여 성인 조직범죄집단의 하부적인 청소년 폭력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조직폭력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른 전형적인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비행집단과 비행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청소년 비행집단에서 보다 비행의 정도가 심한 청소년 폭력조직의 구성원이 되면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기가 보다 어렵게 되므로 가장 앞선 단계인 청소년 비행집단을 통제하는 것이 예방적 성격의 조치로서 보다 높은 효율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 집단의 연계현상에 대한 통제수단은 청소년 비행행위 방지제도와 관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V. 유입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방법

청소년 비행행위 방지제도 중에는 그 본질적 목적상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이 성인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의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더 나아가 양 집단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데 관련된 구체적인 방지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4.1 청소년 폭력조직 전담대책기구의 신설

청소년 비행집단과 성인 폭력조직의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일명 청소년 폭력조직은 유입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통제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비행행위의 정도에 비해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집단이 발생하게 된 다양한 원인만큼 성인 조직폭력집단으로 유입된 단계도 다양하다. 또한 이 원인과 단계가 다양한 만큼 그를 담당하는 기관들도 산재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 청소년 폭력조직 구성원에 대한 처우문제를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 폭력조직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16]

이와 같은 전담대책기구 신설의견은 가장 문제시되는 대상에 대한 기관을 두어 구체적으로 체계화·전담화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이 향후 정착된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성급하게 도입한다면 현재 청소년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업무의 영역이 겹치는 등 도리어 체계화에 역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선 기존의 다양한 제도들을 더욱 포괄적이고 개선적으로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청소년 활동공간 대상의 기존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활동

청소년들이 조직범죄활동에 가담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은 서로 상당 부분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는데 범죄학관련 이론과 청소년들의 심리적 원인의 공통점으로 청소년들을 둘러싼 경제적·문화적 환경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활동공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비행청소년을 포함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집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그 외의 시간은 학교와 집을 잇는 동선 내에서 보낸다고 할 수 있다. 종전까지 이러한 청소년들의 주된 활동공간에 대한 생활지도 차원의 통제는 주로 학교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지금은 교육계 내에서의 문제는 물론이고 청소년 비행집단의 학교폭력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청소년 비행행위는 기존의 교권에 의한 통제보다 더 강한 통제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학교와 경찰의 연계프로그램이나 종전부터 주목받아오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지역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의 증대와 관련하여 그 논의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기존의 제도 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경찰제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비행청소년 상담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4.2.1 학교경찰제의 개선

우선 청소년들이 통제받지 않고 주로 활동하며 또 상호간의 접촉이 잦으며 손쉽게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공간은 학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학교폭력 방지제도를 폭넓게 운용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기존의 여러 방지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해지자 당국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도 각 주체들의 시행의욕이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현직교사들의 교권실추와 소명의식 저하로 인해 학교 자체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비행행위를 예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17]

결국 교내외에서 현재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역할을 통하여 잠재적 피해대상인 일반청소년의 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학교와 경찰간의 연계프로그램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증하듯 학교경찰제는 2005년 부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후 동년 11월부터 ‘학교경찰’이라는 명칭을 ‘배움터지킴이’로 바꾸어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외부용역평가의 결과 당초의 우려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18]

하지만 이 학교경찰제의 도입에 대하여 학교경찰로 임명되는 자들이 주로 퇴직경찰이라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비행행위를 보다 음지로 모는 결과를 초래하며 학생지도에 관한 인권문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교내외를 아우르는 전담경찰관의 선도를 위주로 하는 활동으로 전환하여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4.2.2 지역사회에서의 관심과 보호

종래부터 공공정책의 관심사가 Community 즉, 지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로 향하고 있으며 경찰서비스에도 이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경찰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현재의 경찰활동에는 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서비스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이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등 시민의 참여와 협력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19]

그리고 청소년은 이성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므로 가족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데 대개의 비행청소년들은 이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 등 청소년 개인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등을 제시할 수 있다.[20][21]

이러한 사항들을 청소년 비행집단에 대한 보호에 적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지역공동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운영중인 청소년 범죄자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있다.[22] 그리고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경찰과 한국 BBS연맹 등 지역별 청소년 보호기관과의 연계활동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 이 사랑의 교실이라는 선도프로그램을 경험한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율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본다면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와 관심이 청소년 비행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운영사례들과 관련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각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보호정책에 대하여 보다 적합성있는 논의가 선행된다면 비행예방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V. 결 론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 중 일부는 여러 원인에 의하여 다양한 비행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특유의 성격으로 집단을 형성한다.[23] 이러한 청소년 비행집단은 성인들의 폭력조직에 대하여 자신들이 접할 수 있는 경로로 보고 배우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목적을 얻고자 보다 조직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성인 조직범죄집단은 그들의 조직을 유지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들을 자신들의 조직으로 포섭하려 한다. 이에 청소년들은 지위 상승의 욕구 등에 이끌려 조직범죄집단에 유입되며 이는 해당 청소년 개인의 인생은 물론 그 주변의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비행행위 예방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왔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주된 공간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예방조치이다. 학교와 같은 공간은 건전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비행집단을 피하기가 곤란하여 상납고리와 같은 예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그들에 동화되어 청소년 비행집단의 일원이 되는 이른바 감염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을 꾀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활용하던 제도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동범, “한국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 연구 제7권 제2호, p.304, 2005.
- [2] 세계일보, “불량서클 70% 성인폭력 조직과 연계”, 2007. 3. 4 보도.
- [3] 헤럴드경제, “중고생 ‘짱’ 키워 어른조폭으로...”, 2008. 2. 22 보도.

- [4] 경찰청, “경찰백서 - 조직폭력배 연평별 검거 현황”, 경찰청 홈페이지, 2005·2006·2007.
- [5] 최응렬·송병호·김연수,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6-53, p.124, 2006.
- [6] 김준호 외 5인, “청소년 비행론”, pp.221~233, 청목출판사, 2006.
- [7] Michael D. Lyman·Gary W. Potter, “Organized Crime”, pp.66~67, Prentice Hall, 2006.
- [8] Michael D. Lyman·Gary W. Potter, 전게서, pp.68~70, 2006.
- [9] Howard Abadinsky, “Organized Crime”, pp.23~31, Wadsworth Publishing, 2006.
- [10] Michael D. Lyman·Gary W. Potter, 전게서, pp.61~62, 2006.
- [11] 김희수·양혜원, “저소득 가정 이동 및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구조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1호, p.179, 2007.
- [12] 최응렬·송병호·김연수, 전게서, p.48, 2006.
- [13] Larry J. Siegel, “Criminology”, p.220·233, Wadsworth Publishing, 2002.
- [14] 김경호, “남자 청소년의 남성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p.320, 2004.
- [15] 최응렬·송병호·김연수, 전게서, pp.47~49, 2006.
- [16] 최응렬·송병호·김연수, 전게서, pp.124~126, 2006.
- [17] 헤럴드경제, “초중고 ‘외톨이 상담’ 뒷집단”, 2007. 4. 25 보도.
- [18] 경찰청, “경찰백서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경찰청 홈페이지, 2007.
- [19] 박상주, “경찰서비스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1호, pp.271~275, 2003.
- [20] 김지선,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결연관계의 새로운 모델: 멘터링 프로그램”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pp.257~267, 2005.
- [21] 최응렬·송병호·김연수, 전게서, p.127, 2006.
- [22] Michael J. Palmiotto, “Community Policing”, pp.302~304, Aspen Publishers, 2000.
- [23] 김문섭, “하위 문화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집단 비행 연구”, pp.10~12, 한국문화학회 문화연구, 2003.